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서 ‘인간 발달과 가족’ 영역 활동과제에 반영된 교과역량 분석

임모섭* · 최성연**†

*인천생활과학고등학교 교사 · **전남대학교 조교수

An Analysis of Subject Competencies Applied in the Activity Tasks of the ‘Human Development and Family’ Area in High School Technology & Home Economics Textbook Based on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Lim, Mo Seop* · Choi, Seong Youn**†

**Teacher, Incheon Practical Science High School*

***Assistant Professor,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urriculum competencies of relationship-forming ability and practical problem-solving ability reflected in the activity tasks corresponding to the content elements of ‘Love and marriage’, ‘Preparation for parenthood’, ‘Pregnancy and childbirth’, ‘Child care’, and ‘Family culture and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 in the 2015 revised high school technology & home economics textbooks. The data are 330 activity tasks from 12 kinds of high school technology & home economics textbooks. The sub-factors of the relationship-forming ability were selected as Respect for Diversity, Consideration and Care, Family Relationship and Community Spirit, Empathy Ability, Conflict Management, and Communication, and the sub-factors of practical problem-solving ability were selected as Practical Reasoning, Decision Making, Value Judgment, Critical Thinking, and Executive Power. Based on the analysis criteria, the results of the two analyses and the expert review are as follows. First, regarding both the core concepts ‘Development’ and ‘Relationship’, the share of relationship-forming ability was relatively higher than practical problem-solving ability, and conflict management and executive power were the least reflected. For the core concept ‘Development’, Family Relationship and Community Spirit and Critical Thinking were the most reflected sub-factors, and for the core concept ‘Relationship’, Consideration and Care and critical thinking were the most reflected sub-factors. Second, in the case of the relationship-forming ability, the examples of activity tasks across sub-factors of each subject competency were devised to understand diverse opinions and sentiments and to develop competencies to care for each other and maintain healthy family relationships. In the case of practical problem-solving ability, the tasks allowed students to objectively analyze the socio-cultural background underlying the real-life problem, explore alternatives, and apply in their own lives.

† 교신저자: Choi, Seong Youn, Yongbong-ro 77, Buk-gu, Gwangju, 61186, Republic of Korea
Tel: +82-82-62-530-2525, Fax: +82-62-530-2529, E-mail: taeresa@gmail.com.

본 논문은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Key words: 관계형성능력(relationship-forming ability), 기술·가정 교과서(technology & home economics textbook), 실천적문제해결능력(practical problem-solving ability), 인간발달과 가족(human development and family), 활동과제(activity task)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이라는 국가·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의 함양을 교육과정 개정의 주요 방향으로 삼으며 도입되었다(Ministry of Education[MOE], 2017). 핵심역량은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중점적으로 길러야 할 지식, 기능, 태도를 포함하는 실제적 수행 능력을 의미한다. 교육과정 총론에서 제시된 핵심역량은 각 교과별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교과역량을 통해 구체화 된다(MOE, 2017). 따라서 단편적인 지식의 습득을 넘어 교과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으로서 교과역량에 대한 논의가 학교 교육에서 중요하게 되었다.

가정과교육과정에서는 관계형성능력, 실천적문제해결능력, 생활자립능력의 세 가지 교과역량이 제시되어 있다(MOE, 2015a). 가정교과는 개인과 가족의 삶과 연계된 실천적 경험을 중시하는 실천교과이며,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교육과정의 성격에서 교과역량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다. 교과역량은 다양한 하위요소들로 구성되는 총체적인 역량이며 관계형성능력은 존중, 공감, 배려 등, 실천적문제해결능력은 대안 탐색, 비판적 사고, 가치판단 등, 생활자립능력은 자아정체감, 자기관리, 생애설계 등의 하위요소를 중심으로 의미가 정의된다(MOE, 2015a).

‘인간 발달과 가족’ 영역의 학습내용은 청소년의 발달 및 가장 직접적인 미시체계인 가족관계를 다룬다는 점에서 인간에 대한 항구적인 문제를 다루는 가정과 교육의 전통적인 영역으로 교육과정에 지속적으로 포함되어왔다(Lim & Jun, 2016). ‘인간 발달과 가족’ 영역은 ‘발달’과 ‘관계’를 핵심개념으로 하고 있으며, 중학교에서는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학습자

를 대상으로 자신의 발달적 특징과 성적 변화를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친구 관계나 가족관계에서의 소통, 갈등관리와 같은 실천적 역량을 기르기 위한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고등학교에서는 후기 청소년기의 학습자가 자신의 발달에 대한 탐색을 확장시켜 성인이 되었을 때의 배우자 선택, 결혼, 부모됨, 임신과 출산 등 성년기의 발달과업인 친밀감을 달성하기 위한 생애 사건들을 이해하고 가족원 간의 배려와 돌봄을 실천하여 새로운 가족 형성의 기반을 형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인간 발달과 가족’ 영역의 세부 목표에는 세 가지 교과역량 중 관계형성능력과 실천적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Kim & Yu, 2019; MOE, 2015a).

‘인간 발달과 가족’ 영역은 중·고등학교 기술·가정 교육과정상에 공통으로 등장하나 최근 사회적 흐름과 맞물려 부모교육의 성격이 드러나는 고등학교급의 내용들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부모교육은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의 극단적인 가족 부적응 현상에 대한 대안으로서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장기간의 비대면 방식의 관계 맺음은 가족 체계의 폐쇄성을 강화시켰고, 부모 자녀 관계에서의 높아진 밀도는 가정 내 불안과 폭력성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었다(Jin et al., 2022). 결국 부모 역할에 대한 불만족과 부정적 자녀관이 팽배해졌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가족문제의 예방책으로서 부모교육이 주목받게 되었다. 따라서 학교교육과정에서 부모교육의 성격을 띠며, 돌봄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고등학교 ‘인간 발달과 가족’ 영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교과서는 본문과 활동과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교과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해 교사들이 주로 활용하는 교수·학습 자료이며(Kim et al., 2017), 그중 교과서의 활동과제는 교과서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 중 학생 참여형 수업을 이끌어내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활동과제는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자발적인 문제 해결 과정을 수행해야 하며(Eo & Oh, 2009),

과제별로 다양한 교수·학습 전략이 적용되어 학습의 효과성은 물론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이에 활동과제는 학생 참여형 수업의 근간이 되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높여 학생들이 스스로 의미 있는 학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교과가 목표로 하는 교과역량을 내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되고 이에 따른 교과서가 집필되는 시점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에서 현장 적용이 핵심인 활동과제를 분석하여 교과역량 함양을 위한 활동과제 개발의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인간 발달과 가족' 영역을 대상으로 교과서 활동과제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단원내용 분석(Kim & Song, 2019; Kim et al., 2019)이나 K-SDGs(Kim & Choi, 2021), 융복합교육(Lee, 2018a) 등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중학교 교과서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비중이 높고, 핵심개념의 일부인 '관계'에 해당되는 활동과제를 분석한 연구(Kim & Yu, 2019)는 있으나 '인간 발달과 가족' 영역의 핵심개념인 '발달'과 '관계'에 해당되는 활동과제를 모두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가정 교과서에 반영된 교과역량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중학교 교과서 내 활동과제를 대상으로 한 Kim과 Yu(2019), Park(2020)의 연구가 있으나 고등학교 교과서에 반영된 교과역량을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고교학점제가 일부 도입되고 있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아동발달과 부모'가 융합 선택 과목으로 신설된 시점에서, 또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의 연계성 차원에서 '인간 발달과 가족' 영역에서 고등학교의 교과역량 함양을 위한 활동과제 분석 및 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인간 발달과 가족' 영역의 세부 목표에서 강조하고 있는 교과역량으로 관계형성능력, 실천적문제해결능력이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의 활동과제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고등학교의 '인간 발달과 가족' 영역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가정교과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관계형성능력과 실천적문제해결능력의 하위요소가 교과서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지를 양적으로 분석하고, 어떤 내용과 교수·학습방법으로 교과서에 반영되어 있는지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질적

내용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역량은 다양한 하위요소들로 구성되는 총체적인 역량이기 때문에 교과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하위요소들을 단편적으로 활용하는 것보다 다양한 하위요소들을 융합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교과역량을 기르기 위한 활동과제 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관계형성능력, 실천적문제해결능력의 다양한 하위요소가 반영된 활동과제의 사례를 제시하고, 교과역량별 활동과제의 주요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교과역량의 반영 비율 분석과 활동과제의 사례 제시 및 주요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고등학교 '인간 발달과 가족' 영역에서 관계형성능력과 실천적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활동과제를 개발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내용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정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서 '인간 발달과 가족' 영역의 핵심개념 '발달'과 '관계'에 해당하는 활동과제에 대해 관계형성능력과 실천적문제해결능력의 하위요소 반영 비율을 분석한다.

둘째, 관계형성능력과 실천적문제해결능력의 각 하위요소가 다양하게 반영된 교과서 활동과제의 사례를 제시한다.

셋째, 관계형성능력, 실천적문제해결능력의 하위요소별로 교과서 활동과제에 구현된 주요 내용을 분석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인간 발달과 가족' 영역의 가정과 교과역량

2015 개정 고등학교 '인간 발달과 가족' 영역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교과역량은 관계형성능력과 실천적문제해결능력으로 각 역량의 정의와 하위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관계형성능력의 정의 및 하위요소

2015 개정 고등학교 기술·가정의 교육과정 성격에서는 관계형성능력을 ‘대상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과 공감, 배려와 돌봄으로서 공동체 감수성을 키워 자신과 가족, 친구, 지역사회, 자원, 환경과의 건강한 상호작용과 관계를 형성·유지할 수 있는 능력(MOE, 2015a, p.32)’으로 정의하고 있다. 관계형성능력은 가정과 교육이 추구하는 행복한 삶을 위한 관계 맺음을 실천하는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의 인간상과 연결되며, 구체적으로는 개인이 가족을 포함한 타인과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기술과 정서적 태도를 포함하는 교과역량이다.

교과역량의 하위요소는 교과역량의 의미를 구성하는 세부

요소이며 핵심개념 및 내용요소를 소재로 한 가정과 수업에서 교수·학습 및 평가와 교과역량이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Kwon, 2018; S. H. Park et al., 2018). 2015 개정 교육과정 문서에는 교수·학습 및 평가의 근거인 성취기준에 교과역량의 일부 하위요소가 표현되어 있으나 각 교과내용에 따라 함양할 수 있는 하위요소가 무엇인지는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않다. 가정과 수업을 통한 교과역량의 실제적인 함양을 위해 관계형성능력의 하위요소를 규명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관계형성능력의 하위요소를 제시한 연구에서는 주로 타인 존중, 소통, 배려, 돌봄, 환경 및 생태 의식, 가족관계, 공동체 의식, 공감능력, 갈등관리, 의사소통, 문화수용성을 하위요소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연구에는 선행연구에 따라

Table 1. *The Sub-Factors of the Relationship-Forming Ability by Researchers*

하위요소	연구자 Jin 외(2015a; 2015b)	Kim (2017)	S. H. Park 외(2018)	Lim과 Park (2019)	Kim과 Yu (2019)	Kwon (2018)	Yang과 Yoo(2018)
타인 존중	○	○	○	○	○		
소통	○	○	○	○			
배려	○	○	○	○	○	○	○
돌봄	○	○	○	○	○	○	○
환경 및 생태 의식	○	○	○	○	○		
가족관계	○	○	○	○	○		
공동체 의식	○	○	○	○	○		
공감능력	○	○	○	○	○	○	○
갈등관리	○	○	○	○	○		
의사소통	○	○	○	○	○		
문화수용성	○	○	○	○	○		
다원적 가치 존중					○		
존중						○	○
관계 맺기(관계 형성 및 유지)						○	
공동체 감수성						○	
건강한 상호관계						○	
관계 형성							○
갈등관리 및 조정							○
리더십							○
협동							○
개방성 및 유연성(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 관용 등)							○

에서 활동과제 개발을 위해 교과서를 분석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다.

고등학교 가정 교과서의 활동과제를 분석한 연구는 특정 주제나 이론 및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단원을 분석한 연구(Kim & Chae, 2019; Lee, 2018b), 한복 관련 단원을 분석한 연구(Suh, 2021), 데이트폭력 예방 관련 고등학교 가정과 교수·학습과제 개발을 위해 가정 교과서 내용을 분석한 연구(Han, 2018), 청소년 회복탄력성 하위요인을 기준으로 활동과제를 분석한 연구(Choi et al., 2018), 융복합교육 관점을 통해 학습활동을 분석한 연구(Lee, 2018a) 등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들이 있다. 그리고 Romey 기법을 활용하여 교과서 탐구성향을 분석한 연구(Lee & Lee, 2018; Yuk, 2020), Habermas의 세 행동 체계를 기준으로 한·미 고등학교 교과서의 활동과제를 비교한 연구(Choi & Chae, 2020), ARCS 동기 유발전략을 활용하여 활동과제를 분석한 연구(Han & Lee, 2018) 등 특정 기법이나 이론을 바탕으로 이뤄진 연구가 있다.

이 연구들 중에서 ‘인간 발달과 가족’ 영역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Lee(2018a)는 핵심개념 ‘발달’을 내용요소로 하여 문제해결력과 사고력을 기르는데 효과적인 교과서 토론 활동과제를 분석하였는데, ‘사랑과 결혼’에 해당되는 배우자 선택 관련 내용 및 ‘부모됨의 준비’에 해당하는 내용에서 가장 많은 토론 활동과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an(2018)은 중·고등학교 가정 교과서의 내용요소를 분석한 것을 토대로 하여 데이트 폭력 예방을 위한 교수·학습 과정을 개발하였는데, 데이트 폭력은 고등학교 가정 교과서에서 ‘사랑과 결혼’, ‘가족의 생애주기별 안전’의 내용요소와 연관성이 크지만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심도 있게 다루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청소년들의 경우 이성교제 및 낭만적 사랑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사회·정서적 발달 특징으로 인해 데이트 폭력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정규교육과정 내 가정과 수업을 통한 지속적인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Choi 외(2018)는 고등학교 가정 교과서의 ‘인간 발달과 가족’, ‘가정생활과 안전’ 영역 단원의 활동 과제를 회복탄력성 하위요인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는데, 분석 대상 교과서 모두 활동과제 속에 회복탄력성 하위요인을 포함하고 있었고 대인관계 능력과 자기조절능력의 반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긍정성 요소는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

어 이를 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제 개발을 제안하였다. Lee(2018a)는 목표, 방식, 맥락 차원에서 가정과 교육에 적합하도록 재구성한 융복합교육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핵심개념 ‘발달’ 단원의 학습활동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다수의 교과서가 언어, 상징 등을 이용한 도구의 상호작용적 활용을 포함하는 목표 차원 위주의 융복합교육의 양상을 보인다고 보았다. 하지만 가정과 교사의 교수·학습 역량에 따라 교과서가 갖는 목표 차원 위주의 한계를 넘어 방식 차원과 맥락 차원도 고려된 균형 있는 융복합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학생들이 삶 속에서 마주하는 실천적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기르는 데 가정교과의 목표가 있으며 이러한 역량을 기르기 위해 가정과 수업에서 구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교과서 활동과제 수행을 통한 실천적 문제의 직·간접적인 해결 경험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고등학교 ‘인간 발달과 가족’ 영역에 대하여 영역 전체를 다루는 교과서 분석 연구 자체가 전반적으로 부족하며, 영역의 핵심개념이 교과서에 구현되는 데 기본이 되는 교과 교육과정의 목표, 교과역량, 교수·학습방법, 평가방법 등에 대한 내재적 탐색이 이뤄지는 연구도 핵심개념 ‘발달’을 범위로 한 Lee(2018b)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교과서의 주요 구성요소인 활동과제에 반영된 교과역량의 분석은 중학교 가정 교과서 핵심개념 ‘관계’ 단원의 활동과제에 반영된 교과역량을 분석한 연구(Kim & Yu, 2019), 중학교 가정 교과서 ‘가정생활과 안전’ 영역의 활동과제에 반영된 교과역량을 분석한 연구(Park, 2020)가 있으며, 고등학교 가정 교과서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역량 기반의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중요한 요소이자 교과서 활동과제에 대한 내용 타당도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교과역량이 고등학교 가정 교과서상에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절차

본 연구는 고등학교 기술·가정 ‘인간 발달과 가족’ 영역의 교과서 활동과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내용분석법(content analysis)을 활용하였다. 내용분석은 크게 내용분석 대상의 선정 및 표집, 범주화와 단위화, 자료의 분석, 결론 도출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Park et al., 2020). 이에 본 연구는 <Table 3>과 같이 내용분석법의 과정에 따라 진행하였고,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두 차례의 전문가 검토를 받았다. 내용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질적내용분석을 활용하여 교과역량별 하위요소가 다양하게 반영된 대표적인 교과서 활동과제 사례와 교과역량의 하위요소별로 주요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2. 분석 대상

본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집필된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서 12종을 대상으로 하였다. 12종 교과서는 <Table 4>와 같이 표기의 편의성과 분석 과정에서의 오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A-L의 기호를 사용하였다.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내용 체계에 근거하여 교과서별로 ‘인간 발달과 가족’ 영역을 다루는 대단원 내의 핵심개념 ‘발달’의 내용요소인 ‘사랑과 결혼’, ‘부모됨의 준비’, ‘임신 중 생활과 출산과 핵심개

념 ‘관계’의 내용요소인 ‘자녀 돌보기’, ‘가족 문화와 세대 간 관계’에 해당하는 단위 전체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교과서 내 요소 중에서 고등학교 가정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과역량 함양을 위해 학생들의 실제 수행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활동과제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동과제는 능동적인 학습활동을 요구하는 학습 자료를 의미하며, ‘스스로 해보기’, ‘활동으로 역량 키우기’ 등으로 제시되는 활동과제명, ‘부모 역량이 무엇인지 이야기해보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토의해보자’ 등의 발문, 그리고 함께 제시되는 기타 텍스트 및 시각 자료는 포함 시키되, 사진 및 그림과 같은 시각자료나 읽기자료 등 학생들의 능동적인 수행을 요구하지 않거나 도입 부분의 자가 진단 평가나 정리 부분의 형성·총괄평가 등 단순히 학습 내용의 도달 정도를 평가하는 문항의 형태로 제시되는 학습과제들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나의 활동 과제가 2개 이상의 활동으로 구성되는 경우 하나의 활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활동 간 연계성이 큰 경우에는 하나의 활동 과제로 분석하였으며, 반대로 활동 간 연계성이 적고 독립된 활동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하나의 활동과제로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인간 발달과 가족’ 영역에 해당하는 총 330개의 활동 과제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교과서 종류별로 A 교과서 23개, B 교과서 48개, C 교과서 29개, D 교과서 18개, E 교과서 37개, F 교과서 23개, G 교과서 20개, H 교과서 29개, I 교과서 36개, J 교과서 17개, K 교과서 26개, L 교과서 24개이다.

Table 3.
Research Procedures

단계	연구 내용	세부 내용
1단계	분석 대상 선정	교과서 내 ‘인간 발달과 가족’ 영역 단위 활동 과제 선정 및 분석 단위 결정
2단계	분석 준거 설정	교과 역량별 하위요소의 의미에 근거한 분석 준거 설정
3단계	1차 분석	분석 기준에 따라 교과서 활동과제에 반영된 하위요소 분석
4단계	전문가 내용타당성 검토	1차 분석 결과에 대한 가정교육 전문가 내용타당성 검토
5단계	2차 분석 및 전문가 재검토	검토 사항을 바탕으로 2차 분석 진행 후 전문가 재검토를 거쳐 최종 분석 결과 도출
6단계	빈도 분석	최종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교과서 활동과제에 반영된 교과역량별 반영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빈도 분석 실시
7단계	활동과제 사례 분석	최종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교과역량별 하위요소가 다양하게 반영된 대표적인 교과서 활동과제의 사례 제시
8단계	활동과제 내용 분석	최종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교과역량의 하위요소별로 주요 내용 제시

Table 4.
High School Technology & Home Economics Textbook to Analyzed

기호	대단원명	페이지	페이지 수	활동과제 수	
A	I. 인간 발달과 가족	10~39	30	23	
B	I. 인간 발달과 가족	10~43	34	48	
C	I. 인간 발달과 가족	10~45	36	29	
D	I. 인간 발달과 가족	10~47	38	18	
E	I. 인간 발달과 가족관계	10~46	37	37	
F	I. 인간 발달과 가족	7~44	38	23	
G	I. 인간 발달과 가족관계	8~41	34	20	
H	I. 건강한 가족 만들기	12~43	32	29	
I	I. 건강한 삶, 행복한 가정	12~33	22	36	36
	II. 자녀 돌보기와 가족 문화	36~49	14		
J	I. 인간 발달과 가족	10~47	38	17	
K	I. 인간 발달과 가족	10~43	34	26	
L	I. 결혼과 가족	12~51	40	24	
합계				330	

3. 분석 준거 설정

교과서 활동과제에 반영된 관계형성능력과 실천적문제해결능력을 분석하기 위해 설정한 분석 준거는 각각 <Table 5>, <Table 6>과 같다. 분석 준거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MOE, 2015b), 2015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MOE, 2015a), 관계형성능력, 실천적문제해결능력의 하위요소와 그 의미를 연구한 결과를 기반으로 설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준거 설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역량별 하위요소를 선정하였다. 선행연구(Jin et al., 2015a; 2015b; Kim, 2017; S. H. Park et al., 2018; Lim & Park, 2019; Kim & Yu, 2019; Kwon, 2018; Yang & Yoo, 2018; Park, 2020)를 바탕으로 관계형성능력은 다양성의 존중, 배려와 돌봄, 가족관계와 공동체 의식, 공감능력, 갈등관리, 의사소통 등 6가지 하위요소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실천적문제해결능력은 실천적 추론, 의사결정, 가치판단, 비판적 사고, 실행력 등 5가지 하위요소로 선정하였다. 둘째, 하위요소의 의미를 정의하였다. 각 하위요소별 선행연구(Kim & Yu, 2019; S. H. Park et al., 2018; Park, 2020)를 기반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육과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연

구자가 분석, 통합 및 재구성하였다. 셋째, 하위요소의 의미를 기반으로 판단 기준을 설정하였다.

관계형성능력의 하위요소별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양성의 존중’은 나와는 다른 대상에 대한 존중, 인정(이해), 관용의 내용을 다루면서 교수·학습 상황에서 나와 다른 학급 친구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이 이루어지는 활동과제에 해당한다. ‘배려와 돌봄’은 타인을 향한 애정과 관심, 돌봄의 역량을 담고 있으며 관계의 소중함 등 관계 맺음으로부터 오는 긍정적 정서를 경험해 볼 수 있는 활동과제에 해당한다. ‘가족관계와 공동체 의식’은 가족관계와 더불어 연인, 친구,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건강한 상호작용이 중요한 이유와 이러한 건강한 관계 맺음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을 탐색해 보는 활동과제에 해당한다. ‘공감능력’은 공감적 태도의 중요성을 다루거나 타인의 감정을 직·간접적으로 느끼고 함께 공유해 볼 수 있는 활동과제에 해당한다. ‘갈등관리’는 가족관계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갈등 상황과 그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조정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는 활동과제에 해당한다. 또한 가족관계에서의 갈등을 병리적 현상으로 수용하기보다 더 나은 가족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도약의 발판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긍정적 태도의 함양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활동과제도 해당한다. ‘의사소통’ 비언어적 표현 등의 해석과 이를 활용한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은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에서 볼 수 있는 언어, 상징, 텍스트, 중요성 및 구체적인 방법을 다루는 활동과제에 해당한다. 다

Table 5.
The Analysis Criteria of Relationship-Forming Ability

하위요소	의미	판단 기준	설정 근거
다양성의 존중	타인, 타 세대, 타 문화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관용적인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인, 타 세대, 타 문화에 대한 존중 나와 다름의 인정 및 이해 관용의 태도 교수·학습 상황에서의 학습자 간 다양성 존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S. H. Park 외(2018)가 제시한 하위요소인 ‘타인 존중’, Kim과 Yu(2019)가 제시한 하위요소인 ‘타인 존중’, ‘문화수용성’의 의미 통합 및 재구성 핵심개념 ‘관계’의 내용요소인 ‘가족 문화와 세대 간 관계’를 고려하여 중요 관계로서 타 세대 추가
배려와 돌봄	타인에 대해 애정을 바탕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살필 수 있으며, 그들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정서적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인에 대한 애정과 관심 돌봄 역량 관계에 대한 긍정적 정서 경험(소중함, 행복, 감사, 보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S. H. Park 외(2018), Kim과 Yu(2019)가 제시한 하위요소인 ‘배려와 돌봄’에 대한 각각의 의미를 통합 및 재구성
가족관계와 공동체 의식	자신과 가족을 중심으로 연인, 또래 관계 및 지역사회와의 건강한 상호작용과 관계를 형성, 유지 및 성장시킬 수 있는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 연인, 또래 관계 및 지역사회와의 건강한 상호작용의 중요성 건강한 관계 맺음 및 유지를 위한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S. H. Park 외(2018)가 제시한 하위요소인 ‘가족 관계와 공동체 의식’의 의미 재구성 핵심개념 ‘발달’의 내용요소인 ‘사랑과 결혼’을 고려하여 중요 관계로서 연인 추가
공감능력	상대방의 상황과 입장이 되어 그들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것을 통해 지각되는 정서적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감적 태도의 중요성 다양한 맥락 속 타인의 감정을 느껴보는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Kim과 Yu(2019)가 제시한 하위요소인 ‘공감능력’의 의미 재구성
갈등관리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과 배경을 분석하고, 의미 있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해결하려는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객관적 분석 가족관계에서의 갈등관리 방법 갈등 해결을 위한 긍정적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S. H. Park 외(2018)가 제시한 하위요소인 ‘공감 능력과 갈등관리/의사소통/문화수용성’의 의미와 Kim과 Yu (2019)가 제시한 하위요소인 ‘갈등관리’의 의미 통합 및 재구성
의사소통	다양한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적합한 언어, 상징, 텍스트를 해석하고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맥락 속 언어, 상징, 텍스트 등의 해석 의사소통의 중요성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교수·학습 상황에서의 의사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Kim과 Yu(2019)가 제시한 하위요소인 ‘공감능력’의 의미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MOE, 2015b) 중 ‘의사소통 역량’의 의미 통합 및 재구성

Table 6.
The Analysis Criteria of Practical Problem-Solving Ability

하위요소	의미	판단 기준	설정 근거
실천적 추론	실생활 속 문제에 내포된 맥락이나 배경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문제 해결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제의 맥락과 배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S. H. Park 외(2018)가 제시한 하위요소인 ‘실천적 추론’의 의미 재구성
의사결정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대안 중 가장 적합한 대안을 선택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의 탐색과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Kim과 Yu(2019)가 제시한 하위요소인 ‘의사결정’의 의미 활용
가치판단	어떤 사실에 대한 자신만의 가치를 주체적으로 나타내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치에 대한 주체적인 의사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Kim과 Yu(2019)가 제시한 하위요소인 ‘가치판단’의 의미에 고등학교 기술·가정의 성격인 ‘실천적 경험을 통한 자기주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교과(교육부, 2015b)’의 측면에서 주체성을 포함하여 의미 재구성
비판적 사고	객관적인 분석과 정당한 기준에 근거하여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판단하는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제의 객관적 분석 정당한 기준에 근거한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S. H. Park 외(2018), Kim과 Yu(2019)가 제시한 하위요소인 ‘비판적 사고’에 대한 각각의 의미를 통합 및 재구성
실행력	자신이 세운 계획을 실제 행동으로 실천하려는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제 자신의 생활 속에서의 실천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S. H. Park 외(2018)가 제시한 하위요소인 ‘실행력’의 의미 재구성

불어 토의와 같이 교수·학습 상황에서 의사소통을 필요로 하는 활동과제도 해당한다.

실천적문제해결능력 하위요소별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실천적 추론’은 활동과제 수행 중 문제의 근저에 존재하는 맥락과 배경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찾아가는 사고 과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의사결정’은 생활 속 마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 중 가장 적절한 대안을 선택하는 학습경험을 제공하는 활동과제에 해당한다. ‘가치판단’은 특정한 사실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인 가치를 학생 스스로 표현해 볼 수 있는 활동과제에 해당한다. ‘비판적 사고’는 복잡하게 얽힌 삶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며, 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합리적 판단에 이르는 과정을 경험해 볼 수 있는 활동과제에 해당한다. ‘실행력’은 실천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 행동으로서 직·간접적으로 실천해보도록 요구하는 활동과제에 해당한다.

4.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양적내용분석과 질적내용분석을 병행하였다. 양적내용분석은 설정된 분석 준거에 따라 교과서 활동과제에 반영된 교과역량별 하위요소를 분석하였다. 이 때, 하나의 활동과제가 2개 이상의 하위요소를 반영하는 경우 중복하여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다음 신생아 돌봄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체험하고 느낀 점 이야기해 보기’는 다양한 신생아 돌봄 체험을 통해 느낀 감정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는 수행 과정이 진행되므로 관계형성능력의 하위요소 중 배려와 돌봄, 공감능력, 의사소통과 실천적문제해결능력의 하위요소 중 실행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분석 준거가 2개 이상 제시된 하위요소의 경우 1가지 준거만 충족시키더라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다음 자료를 읽고, 결혼에 대한 생각과 결혼관이 세대별로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토의해보자.’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다루고 있지만, 토의 활동이라는 교수·학습 상황에서의 의사소통을 포함하기 때문에 관계형성능력 하위요소 중 의사소통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자가 1차로 분석한 결과에 대해 가정교육 전문가 2인의 내용타당성 검토를 받았다. 전문가 집단은 석사학위를 소지한 교직 경력 34년의 고등학교 가정과 수석교사, 석사학위를 소지한 교직경력 19년의 고등학교 가정과 교사로 구성하였다. 연구자의 1차 분석 결과를 분석 준거와 함께 이메일을 통해 전문가에게 내용타당도 검토를 의뢰하여 2022년 12월 29일 ~ 2023년 1월 8일까지 검토 기간을 거쳐 결과를 이메일로 회신받았다. 검토 결과, 연구자와 전문가 간 분석 결과가 불일치한 사례는 86개였다. <Table 7>은 불일치한 사례 중 일부분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이메일을 통해 주고받은 전문가의 서면 의견을 바탕으로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파악한 후 분석 결과가 불일치한 활동과제를 대상으로 2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차이가 발생한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서 활동과제의 발문에 대하여 연구자와 검토자 간 분석 준거의 허용 범위가 서로 달랐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경우는 대부분 관계형성능력의 하위요소인 의사소통에서 나타났다. 의사소통의 판단 기준 중 ‘교수·학습 상황에서의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활동과제인지에 대하여 연구자는 ‘~함께 이야기해 보자’, ‘~토의해보자’ 등 발문 상 명확하게 학생들 간의 의사소통을 요구하는 활동과제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해당한다고 분석하였다. 반면 전문가는 ‘~말해보자’, ‘~이야기해 보자’, ‘~발표해보자’, ‘~설명해 보자’ 등 학생들이 구두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도록 요구하는 활동과제도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해 볼 수 있는 수업상황을 가정할 수 있기에 의사소통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경우에는 교실 내 다수의 학생이 참여하는 일반적인 가정과 수업 상황을 고려하여 전문가 의견에 따라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구두로 표현해보도록 하는 발문을 포함한 활동과제도 의사소통이 반영된 것으로 결정하였다.

둘째, 하위요소 간 중복된 의미 영역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형성능력의 하위요소 중 다양성의 존중과 공감능력은 의미상 공통적으로 타인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타인과 의견을 나누기를 요구하는 발문이나 타인의 생각 및 감정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 활동과제에 대하여 둘 중 하나의 하위요소만이 해당되거나 둘 다 해당된다고 파악하는 등 분석 결과의 차이가 발생했다. 이러한 경우에는 두 하위요소 간 개념 구분의 명료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성

의 존중은 타인의 주장, 의견에 대한 이해와 같이 인지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에 해당하고, 공감능력은 타인이 느끼는 감정의 이해 및 공유처럼 정서적 측면에 중점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단, 타인의 의견과 감정을 모두 고려해야 해결할 수 있는 활동과제는 둘 다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셋째, 교과서 활동과제에서 가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하위요소를 위주로 분석하였는지, 활동과제의 표면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수행과정 중 함양할 수 있는 하위요소도 포함하여 분석하였는지에 대한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천적문제해결능력의 하위요소인 실천적 추론에서의 분석 결과상 차이가 두드러졌다. 연구자는 활동과제의 발문에서

문제 상황에 대한 배경 파악에 근거한 해결 과정을 가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만 실천적 추론에 해당한다고 분석하였다. 반면 전문가는 발문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활동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이면에 숨겨진 배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결방안을 추론해나가는 과정이 포함되는 경우도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경우에는 학생들이 활동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에 내포된 맥락을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고 판단한 전문가 의견에 따라 실천적 추론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2차 분석 후에는 전문가에게 의견 불일치에 대한 원인 분석을 기반으로 작성한 세부 지침을 포함하여 분석 결과를 이메일로 보내 재검토를 요청하여 분석자간의 일관성이 유지되

Table 7.
Some Examples of Activity Tasks Where Primary Analysis and Expert Review Disagreed

No	기호	<핵심개념-내용요소> 활동과제	교과 역량 ¹⁾	분석 및 검토 결과 ²⁾			
				연구자	전문가 1	전문가 2	최종
1	A	<발달-임신 중 생활과 출산> 생각 키우기: 계획 임신 실천하기 (p.17)	PC	PC5	PC5	PC1, PC5	PC1, PC5
2	B	<발달-사랑과 결혼> 생각 열기: 누구나 사랑과 결혼에 대한 꿈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랑과 결혼의 결실로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한다. 사랑과 결혼에 대한 나의 생각은 어떠한지 이야기해 보자. (p.10)	RC	RC2, RC3	RC2, RC3, RC6	RC2, RC3	RC2, RC3, RC6
			PC	.	PC3	.	PC3
26	C	<발달-사랑과 결혼> 탐구 활동: 영화나 음악, 문학 등의 예술 작품 속에 표현된 사랑의 예를 조사하여 '로버트 스티븐버그의 사랑의 유형'에 따라 분석해보고,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p.12)	RC	RC3	RC3	RC3, RC6	RC3, RC6
33	D	<관계-가족 문화와 세대 간 관계> 스스로 활동: 세대 간 관계를 조화롭게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과 방안을 알아보자. (p.41)	PC	PC4, PC5	PC4, PC5	PC1, PC4, PC5	PC1, PC4, PC5
34	E	<발달-사랑과 결혼> 활동하며 배우기: 「춘향전」, 「로미오와 줄리엣」, 「해리포터」 등 다양한 작품 속에 그려진 사랑을 다음 예시와 같이 스티븐버그의 사랑의 삼각형에 적용하여 본 후 어느 유형에 가까운지 알아보고, 이를 성숙한 사랑으로 발전시켜 가려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이야기해 보자. (p.11)	RC	RC3	RC3, RC6	RC3, RC6	RC3, RC6
49	F	<발달-사랑과 결혼> 활동으로 배우기: 나와 친구들의 배우자 선택 기준을 비교하여 이야기해 보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한 배우자 선택 기준에 대해 모둠별로 토의해 보자. (p.15)	PC	PC2, PC3, PC4	PC2, PC3, PC4	PC1, PC2, PC3, PC4	PC1, PC2, PC3, PC4

Note. ¹⁾ RC(Relationship Forming Capability): 관계형성능력, PC(Practical Problem Solving Capability): 실천적문제해결능력
 Note. ²⁾ RC1: 다양성의 존중, RC2: 배려와 돌봄, RC3: 가족관계와 공동체 의식, RC4: 공감능력, RC5: 갈등관리, RC6: 의사소통
 PC1: 실천적 추론, PC2: 의사결정, PC3: 가치판단, PC4: 비판적 사고, PC5: 실행력

도록 하여 연구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2023년 2월 5일 ~ 2023년 2월 13일의 기간을 거쳐 재검토 결과를 이메일로 회신 받았으며, 1차 분석에서 불일치했던 부분 또한 합의되어 최종 분석 결과를 확정하였다. 최종 분석 결과는 스프레드시트(Ms Excel)를 활용하여 교과서 활동과제별로 분석된 각 교과역량별 하위요소의 누계를 산출하여 빈도 분석을 하였다.

질적내용분석은 자료의 내용을 주관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연구방법(Son, 2017)으로 양적내용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교과역량별 하위요소가 반영된 활동과제를 선정하여 교과역량별 활동과제 사례를 제시하였다. 즉, 최종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형성능력의 하위요소는 5가지 이상, 실천적문제해결능력의 하위요소는 4가지 이상 반영된 교과서 활동과제 중 각 교과역량별 대표 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교과역량의 하위요소별로 교과서 활동과제에 구현된 교육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교과역량의 하위요소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주요 내용을 제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핵심개념 ‘발달’ 관련 교과서 활동과제에 반영된 교과역량 분석

1) 교과역량별 분석

핵심개념 ‘발달’의 내용요소에 따라 교과역량별 반영 빈도

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핵심개념 ‘발달’에 해당하는 활동과제에 반영된 교과역량별 하위요소는 총 914개로 분석되었다. 그 중, 관계형성능력의 하위요소가 59.08%(540개), 실천적문제해결능력의 하위요소가 40.92%(374개)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관계형성능력의 하위요소가 반영된 비율이 높았다. 핵심개념 ‘발달’의 내용요소에 따라 분석한 결과, 모든 내용요소에서 관계형성능력의 반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관계형성능력의 경우 내용요소 중 ‘부모됨의 준비’의 경우 관계형성능력의 반영 비율이 62.10%(195개)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실천적문제해결능력의 경우 ‘사랑과 결혼’에서 가장 높은 반영 비율(43.34%, 179개)을 보였다.

2) 관계형성능력 하위요소별 분석

핵심개념 ‘발달’의 내용요소에 따라 관계형성능력의 하위요소별 반영 빈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핵심개념 ‘발달’에서는 관계형성능력의 하위요소 중 가족관계와 공동체 의식이 가장 높은 비율(31.85%, 172개)로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배려와 돌봄(24.63%, 133개), 의사소통(17.41%, 94개), 공감능력(13.89%, 75개), 다양성의 존중(9.07%, 49개) 순으로 높았고 갈등관리가 3.15%(17개)로 반영 비율이 가장 낮았다.

핵심개념 ‘발달’의 내용요소에 따라 관계형성능력 하위요소의 반영 빈도를 분석한 결과, ‘사랑과 결혼’에서는 가족관계와 공동체 의식이 38.46%(90개)로 가장 많이 반영된 하위요소로 나타났고 의사소통(22.22%, 52개), 배려와 돌봄(13.25%, 31개), 다양성의 존중(12.39%, 29개), 공감능력(11.97%, 28개) 순

Table 8.
Results of Analyzing the Subject Competency Applied in the Textbook Activity Tasks Related to the Core Concept ‘Development’
N(%)

교과역량 \ 내용요소	사랑과 결혼	부모됨의 준비	임신 중 생활과 출산	합계
관계형성능력	234 (56.66)	195 (62.10)	111 (59.36)	540 (59.08)
실천적문제해결능력	179 (43.34)	119 (37.90)	76 (40.64)	374 (40.92)
합계	413 (100.00)	314 (100.00)	187 (100.00)	914 (100.00)

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갈등관리는 1.71%(4개)로 하위요소 중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부모됨의 준비’에서는 배려와 돌봄(30.26%, 59개), 가족관계와 공동체 의식(27.69%, 54개), 공감능력(16.41%, 32개), 의사소통(13.33%, 26개), 다양성의 존중(7.69%, 15개), 갈등관리(4.62%, 9개) 순으로 반영 비율이 높았다.

‘임신 중 생활과 출산’은 배려와 돌봄이 38.74%(43개)로 가장 높은 반영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가족관계와 공동체 의식(25.24%, 28개), 의사소통(14.41%, 16개), 공감능력(13.51%, 15개), 다양성의 존중(4.50%, 5개) 순으로 비율이 높았고 갈등관리가 3.60%(4개)로 집계되어 가장 낮은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관리가 반영된 4건의 활동과제 내용을 살펴보면, 자녀 유무에 따른 부부의 삶의 질 변화, 임신부 배려석 논란, 출산 후의 가족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정책 탐색, 출산 후 양육과 관련한 부모 갈등과 같이 임신과 출산과 관련하여 가족이 겪게 되는 개인적·사회적 어려움 및 해결방안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가임 여성의 출산 의향은 결혼 만족도, 긍정적인 자녀관, 배우자와의 가사노동 분담 정도 등과 관련되기 때문에(Un & Park, 2020), 저출산 현상과 맞물려 학생들이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갈등을 이해하고 가족과 사회를 위

한 건설적인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

3) 실천적문제해결능력 하위요소별 분석

핵심개념 ‘발달’의 내용요소에 따라 실천적문제해결능력의 하위요소별 반영 빈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핵심개념 ‘발달’에서는 실천적문제해결능력의 하위요소 중 비판적 사고가 28.34%(106개)로 반영 비율이 가장 높았고, 가치판단(26.47%, 99개), 실천적 추론(21.93%, 82개), 의사결정(14.97%, 56개), 실행력(8.29%, 31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핵심개념 ‘발달’의 내용요소에 따라 실천적문제해결능력 하위요소의 반영 빈도를 분석한 결과, ‘사랑과 결혼’은 비판적 사고가 32.40%(58개)로 활동과제 반영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가치판단(29.05%, 52개), 실천적 추론(19.55%, 35개), 의사결정(12.29%, 22개) 순으로 높았다. 실행력의 경우 6.70%(12개)로 반영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됨의 준비’는 가치판단이 30.25%(36개)로 가장 높은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비판적 사고(26.05%, 31개), 실천적 추론(19.33%, 23개), 의사결정(15.97%, 19개) 순으

Table 9.
Results of Analyzing the Sub-Factors of the Relationship-Forming Ability Reflected in the Activity Tasks Related to the Core Concept ‘Development’
N(%)

교과역량 하위요소	내용요소				합계
	사랑과 결혼	부모됨의 준비	임신 중 생활과 출산		
다양성의 존중	29 (12.39)	15 (7.69)	5 (4.50)	49 (9.07)	
배려와 돌봄	31 (13.25)	59 (30.26)	43 (38.74)	133 (24.63)	
가족관계와 공동체 의식	90 (38.46)	54 (27.69)	28 (25.23)	172 (31.85)	
공감능력	28 (11.97)	32 (16.41)	15 (13.51)	75 (13.89)	
갈등관리	4 (1.71)	9 (4.62)	4 (3.60)	17 (3.15)	
의사소통	52 (22.22)	26 (13.33)	16 (14.41)	94 (17.41)	
합계	234 (100.00)	195 (100.00)	111 (100.00)	540 (100.00)	

로 비율이 높았고 실행력의 경우 8.4%(10개)로 활동과제에 가장 적게 구현된 것으로 나타났다. 역량이란 삶의 복잡한 맥락 속에서 자신의 자원을 활용하여 행동할 수 있는 실천력을 말하므로(Park, 2009) 부모됨의 역량 또한 예비부모인 학생들이 직접 삶 속에서 행동으로 실천함으로써 함양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추후 실행력의 반영을 고려한 활동과제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임신 중 생활과 출산’은 실천적 추론이 31.58%(24개)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비판적 사고(22.37%, 17개), 의사결정(19.74%, 15개), 가치판단(14.47%, 11개), 실행력(11.84%, 9개)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2. 핵심개념 ‘관계’ 관련 교과서 활동과제에 반영된 교과역량 분석

1) 교과역량별 분석

핵심개념 ‘관계’의 내용요소에 따라 교과역량별 반영 빈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11>과 같다. 핵심개념 ‘관계’에 해당하는 활동과제에 반영된 교과역량별 하위요소는 총 585개로 분석되었다. 그 중, 관계형성능력의 하위요소가 62.05%(363개),

실천적문제해결능력의 하위요소가 37.95%(222개)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관계형성능력하위요소의 반영 비율이 높았다.

핵심개념 ‘관계’의 내용요소에 따라 분석한 결과, 2개의 내용요소에서 관계형성능력의 반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관계형성능력의 경우, ‘자녀 돌보기’에서의 반영 비율이 63.35%(178개)로 ‘가족 문화와 세대 간 관계’(60.86%, 185개)에 비하여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실천적문제해결능력의 경우 ‘가족 문화와 세대 간 관계’에서의 반영 비율(39.14%, 119개)이 더 높았다. 특히 ‘자녀 돌보기’는 ‘인간 발달과 가족’ 영역의 다른 내용요소와 비교하였을 때 관계형성능력의 반영

Table 11. Results of Analyzing the Subject Competency Applied in the Textbook Activity Tasks Related to the Core Concept ‘Relationship’ N(%)

교과역량 \ 내용요소	자녀 돌보기	가족 문화와 세대 간 관계	합계
관계형성능력	178 (63.35)	185 (60.86)	363 (62.1)
실천적문제해결능력	103 (36.65)	119 (39.14)	222 (37.95)
합계	281 (100.00)	304 (100.00)	585 (100.00)

Table 10. Results of Analyzing the Sub-Factors of the Practical Problem-Solving Ability Reflected in the Activity Tasks Related to the Core Concept ‘Development’ N(%)

교과역량 하위요소	내용요소				합계
	사랑과 결혼	부모됨의 준비	임신 중 생활과 출산		
실천적 추론	35 (19.55)	23 (19.33)	24 (31.58)		82 (21.93)
의사결정	22 (12.29)	19 (15.97)	15 (19.74)		56 (14.97)
가치판단	52 (29.05)	36 (30.25)	11 (14.47)		99 (26.47)
비판적 사고	58 (32.40)	31 (26.05)	17 (22.37)		106 (28.34)
실행력	12 (6.70)	10 (8.40)	9 (11.84)		31 (8.29)
합계	179 (100.00)	119 (100.00)	76 (100.00)		374 (100.00)

비율이 63.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학습요소(MOE, 2015a)에서 신생아기부터 아동기까지의 발달 특징, 자녀 돌보기, 발달 단계에 따른 부모 역할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내용요소 자체에 드러나는 자녀 돌봄의 내용들이 관계형성능력의 하위요소들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기에 도출된 결과로 해석된다.

2) 관계형성능력 하위요소별 분석

핵심개념 '관계'의 내용요소에 따라 관계형성능력의 하위요소별 반영 빈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12>와 같다. 핵심개념 '관계'에서는 관계형성능력 중 배려와 돌봄이 가장 높은 비율(26.72%, 97개)로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가족관계와 공동체 의식(23.97%, 87개), 의사소통(17.63%, 64개), 공감능력(12.95%, 47개), 다양성의 존중(9.92%, 36개) 순으로 높았고, 갈등관리가 8.8%(32개)로 반영 비율이 가장 낮았다.

핵심개념 '관계'의 내용요소에 따라 관계형성능력 하위요소의 반영 빈도를 분석한 결과, '자녀 돌보기'에서는 배려와 돌봄이 40.45%(72개)로 활동과제에 가장 많이 구현된 하위요소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의사소통(19.10%, 34개), 가족관계와

공동체 의식(18.54%, 33개), 공감능력(14.04%, 25개) 순으로 반영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갈등관리(5.06%, 9개)와 다양성의 존중(2.81%, 5개)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부모됨의 준비'와 더불어 '자녀 돌보기'는 가족생활에서 자녀 양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내용요소이며 예비부모로서 청소년들이 미래의 건강가정(health family)을 유지해 나가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갈등관리, 다양성의 존중의 반영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가족 문화와 세대 간 관계'의 경우, 가족관계와 공동체 의식이 29.19%(54개)로 활동과제에 가장 많이 구현된 하위요소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다양성의 존중(16.76%, 31개), 의사소통(16.22%, 30개), 배려와 돌봄(13.51%, 25개), 갈등관리(12.43%, 23개), 공감능력(11.89%, 22개)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다른 하위요소에 비해 갈등관리의 반영 비율이 낮은 편이나 '인간 발달과 가족' 영역의 다른 내용요소의 경우 갈등관리의 반영 비율이 5% 이하였던 것과 달리 '가족 문화와 세대 간 관계'에서는 12.4%로 상대적으로 반영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이는 교육과정 문서에 제시된 성취기준 상 세대 간 관계를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는 방안 탐색을 목표로 하는 내용요소의 성격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12.
Results of Analyzing the Sub-Factors of the Relationship-Forming Ability Reflected in the Activity Tasks Related to the Core Concept 'Relationship' N(%)

교과역량 하위요소	내용요소			합계
	자녀 돌보기	가족 문화와 세대 간 관계		
다양성의 존중	5 (2.81)	31 (16.76)		36 (9.92)
배려와 돌봄	72 (40.45)	25 (13.51)		97 (26.72)
가족관계와 공동체 의식	33 (18.54)	54 (29.19)		87 (23.97)
공감능력	25 (14.04)	22 (11.89)		47 (12.95)
갈등관리	9 (5.06)	23 (12.43)		32 (8.82)
의사소통	34 (19.10)	30 (16.22)		64 (17.63)
합계	178 (100.00)	185 (100.00)		363 (100.00)

3) 실천적문제해결능력 하위요소별 분석

핵심개념 ‘관계’의 내용요소에 따라 실천적문제해결능력의 하위요소별 반영 빈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13>과 같다. 핵심개념 ‘관계’에서는 실천적문제해결능력의 하위요소 중 비판적 사고가 26.1%(58개)로 반영 비율이 가장 높았고, 실천적 추론(23.4%, 52개), 실행력(20.3%, 45개), 가치판단(16.2%, 36개), 의사결정(14.0%, 31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교 기술·가정 핵심개념 ‘관계’ 관련 교과서 활동과제에 대하여 실천적문제해결능력의 하위요소 중 가치판단의 반영 비율이 가장 높았던 선행연구(Kim & Yu, 2019)의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학교급 간 차이가 있었다.

핵심개념 ‘관계’의 내용요소에 따라 실천적문제해결능력 하위요소의 반영 빈도를 분석한 결과, ‘자녀 돌보기’에서는 비판적 사고가 25.2%(26개)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실천적 추론과 실행력이 21.4%(22개), 가치판단(16.5%, 17개), 의사결정의 경우 15.5%(16개) 순으로 반영 비율이 높았다. ‘자녀 돌보기’의 경우 핵심개념 ‘발달’의 내용요소와 달리 실행력의 반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점이 특징이었다.

‘가족 문화와 세대 간 관계’에서는 비판적 사고가 26.9%(32개)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실천적 추론(25.2%, 30개), 실행력(19.3%, 23개), 가치판단(16.0%, 19개) 순

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의사결정의 경우 12.6%(15개)로 하위요소 중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가족 문화와 세대 간 관계’에서는 ‘자녀 돌보기’와 더불어 실행력의 반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3. 교과역량별 활동과제 사례

1) 관계형성능력

<Figure 1>의 사례는 부모와의 세대 간 차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자신이 느꼈던 세대 간 차이의 사례를 활용하여 짝과 역할극을 구성해보고 이를 통해 부모와 자녀의 입장을 공감해보는 활동과제이다. 먼저, 역할극과 세대 갈등의 원인을 보여주는 그래프를 통해 나오는 다른 부모님 세대의 가치관을 이해하고 세대 갈등이 벌어지는 이유를 파악해 볼 수 있는 활동과제로 다양성의 존중과 갈등관리가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생들은 역할극을 통해 부모와 자녀의 역할을 교차시켜 경험해보며 각각의 입장에서 느끼는 감정을 이해할 수 있으며, 더불어 부모 자녀 관계에서의 소중함과 건강한 관계 유지의 중요성을 경험할 수 있다. 즉, 활동과제를 통해 공감능력, 배려와 돌봄, 가족관계와 공동체 의식도 함양

Table 13.
Results of Analyzing the Sub-Factors of the Practical Problem-Solving Ability Reflected in the Activity Tasks Related to the Core Concept ‘Relationship’ 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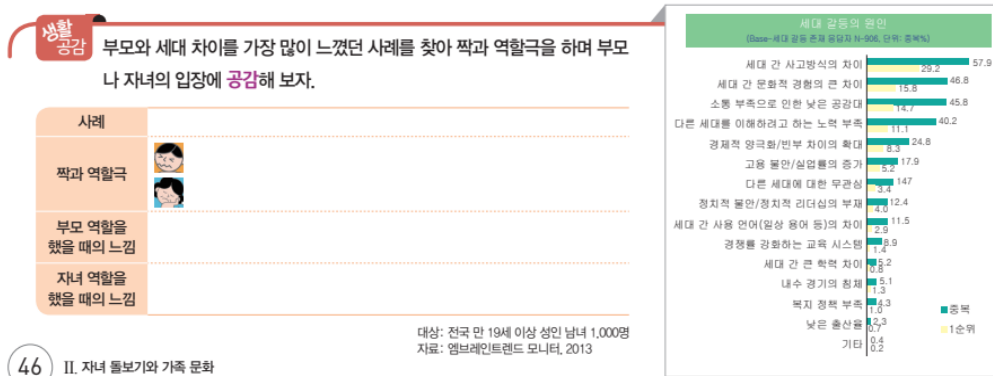
교과역량 하위요소	내용요소		합계
	자녀 돌보기	가족 문화와 세대 간 관계	
실천적 추론	22 (21.36)	30 (25.21)	52 (23.42)
의사결정	16 (15.53)	15 (12.61)	31 (13.96)
가치판단	17 (16.50)	19 (15.97)	36 (16.22)
비판적 사고	26 (25.24)	32 (26.89)	58 (26.13)
실행력	22 (21.36)	23 (19.33)	45 (20.27)
합계	103 (100.00)	119 (100.00)	222 (100.00)

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마지막으로 짝 역할극을 활용하여 수업 상황에서 학생들의 의사소통이 필요한 활동과제에 의사소통 또한 구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계형성능력의 6가지 하위요소를 모두 반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세대 갈등의 원인을 기반으로 자신의 삶을 주제로 한 역할극을 구성하여 세대 간 관계에서의 이해와 공감을 경험해볼 수 있다.

<Figure 2>의 사례는 책임 있는 부모가 되기 위한 효과적인 상호작용 방법을 사례로 제시하고, 나라면 어떻게 행동할지 짝 토론을 통해 생각한 후 친구들과 발표해보는 활동과제이

다. 먼저, 나 전달법이나 적극적 경청과 같이 자녀와의 갈등을 예방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구체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사례로 제시하므로 갈등관리와 의사소통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반적인 훈육이 아닌 자연적 귀결, 논리적 귀결 등 민주적이고 긍정적인 방법을 통해 자녀와의 건강한 관계를 위한 돌봄의 역량을 기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배려와 돌봄, 가족관계와 공동체 의식이 구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4가지 사례 속 상황과 짝 토론을 통해 타인의 다양한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라면 어떻게 행동

Figure 1. Examples of Activity Tasks Related to Relationship-Forming Ability 1



Source: F textbook(p.46)

Figure 2. Examples of Activity Tasks Related to Relationship-Forming Ability 2



Source: E textbook(p.20)

할지를 발표해보는 경험을 통해 다양성의 존중, 공감능력은 물론 교수·학습 상황에서의 의사소통도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Figure 2>의 사례는 관계형성능력의 6가지 하위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Gordon의 부모효율성훈련, Dreikurs의 민주주의 부모교육이론에서 등장하는 구체적인 자녀 양육 방법을 사례로 제시하여 예비부모로서의 역량 증대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활동과제로 볼 수 있다.

2) 실천적문제해결능력

<Figure 3>은 부모됨의 역량을 주제로 일상생활 속 직면하는 자녀의 심리적 문제 상황에 대응하여 부모로서 해야 할 노력과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학생들 스스로 토의를 통해 탐색해보고, 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모듈별 역할극을 만들어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활동과제이다. 우선, 부모 자녀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관련한 실천적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녀의 발달 단계뿐만 아니라 자녀를 둘러싼 환경변인, 즉 개인의 심리적 문제의 이면에 숨겨진 사회적 맥락을 파악해 내는 사고 과정이 요구되므로 실천적 추론이 반영되었다고 분석된다. 예를 들어, <Figure 3>의 사례 1에서 등장하는 다이어트와 관련한 고등학생 자녀의 문제 상

황은 타인의 시선에 민감해지는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징과 더불어 청소년의 신체상(Body image)에 강력하면서도 무의식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미디어와 같이 근저에 깔린 사회적 배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또한, 모듈별 토의를 통해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부모로서의 노력과 역량이 무엇인지 다각도로 탐색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생들이 ‘책임 있는 부모란 어떤 부모일까?’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과정을 거쳐 자신만의 답을 내려보는 경험을 제공하므로, 의사결정과 가치판단이 구현된 활동과제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모듈별 토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심리적 문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기반한 타당한 의견을 학생들이 서로 나눠볼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적 사고가 반영되어 있으며, 역할극을 통해 책임 있는 부모로서의 노력과 역량을 간접적으로 실천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실행력이 구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Figure 3>의 활동과제는 실천적문제해결능력의 5가지 하위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부모의 시선에서 자녀의 심리적 문제를 바라볼 때의 생각과 감정을 사례로 실감나게 구성하여 실제 삶의 연계성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Figure 3. Examples of Activity Tasks Related to Practical Problem-Solving Ability 1

창의 융합 스스로 활동 • 사례를 읽고, 부모가 되기 위한 노력과 역량에 관해 탐구해 보자.

사례 1

우리 아이는 친구들이 자기를 싫어한다면서 하소연하고 종종 울어요. 우리 아이가 수학을 못해서, 자전거를 못 타서, 달리기를 못해서 등의 이유로 싫어한다고 합니다. 회사 일로 바빠서 숙제량 준비물을 몇 번 못 챙겨 준 적이 있는데, 아이의 자존감이 너무 떨어진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사례 2

고등학생 자녀가 갑자기 다이어트를 한다며 밥을 먹지 않아요. 이틀이나 됐는데, 기운도 없어 보이고 짜증도 부쩍 늘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봐도 몰라도 된다면 화만 내니 말도 못 붙이겠어요. 저러다 쓰러지더라도 하는 건 아닌지 정말 걱정이 돼요.

문제 해결 활동 사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가 가져야 할 노력 및 역량과 자녀의 역할에는 무엇이 있는지 모듈별로 토의해 보자.

생생 체험 활동 모듈별로 토의 내용을 정리하여 역할극을 구성하고 실연해 보면서, 책임 있는 부모가 되기 위한 노력과 역량에 대해 체험해 보자.

<Figure 4>는 아동기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문제 행동에 대한 부모의 개입 방법과 바람직한 자녀 양육을 위한 전통적인 자녀 양육 방법의 현대적인 적용에 대해 고민해보도록 하는 활동과제이다. 먼저,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는 자녀의 문제 상황에 대해 토의 과정을 통해 다각도로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탐색하고 결정하는 경험을 하게 되므로 비판적 사고 의사결정이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내가 만약 부모라면 어떻게 행동할까?'라는 질문에 대해 예비부모로서 스스로 판단해보고 토의를 통해 친구들에게 표현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므로 가치판단도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례와 관련하여 사회적 배경으로서 소가족화로 인한 부모의 과잉 양육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나 현대 가족생활에서 지향하는 '친구 같은 부모상'에 대한 비판적 질문을 던지는 발문을 통해 문제의 숨겨진 맥락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필요하기에 실천적 추론 역시 구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Figure 4>의 활동과제는 실천적문제해결능력의 5가지 하위 요소 중 실행력을 제외한 4가지를 반영하고 있으며, 최근 노키즈 존(No-Kids Zone) 논란 등 자녀 양육과 관련한 사회적 현안과 연계될 수 있고, 예비부모로서 필연적으로 겪게 될 문제 상황에 대한 심도 있는 사고를 가능케 하는 활동과제로 볼 수 있다.

4. 교과역량별 활동과제의 주요 내용


관계형성능력, 실천적문제해결능력의 하위요소별로 교과서의 활동과제에 구현된 주요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관계형성능력

관계형성능력의 하위요소별로 교과서 활동과제에 나타난 주요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다양성의 존중이 반영된 활동과제는 연인, 가족관계에서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타인에 대한 존중과 이해의 중요성을 다루거나 사랑의 다양한 의미, 시대에 따라 변하는 가치관 등 '인간 발달과 가족' 영역과 관련한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포함하였다. 그리고 결혼의 가치, 배우자 선택 조건, 부모 역할 등에 대해 학급 친구들과 의견을 나눔으로써 서로의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었다.

배려와 돌봄이 반영된 활동과제는 연인, 부부, 부모와 자녀, 세대 간 관계와 같이 애정이나 애착에 기반한 관계의 돌봄을 다루거나 행복, 소중함, 기쁨, 보람, 감사와 같이 관계에 대한 긍정적 정서를 경험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한, 계획적인 임신 및 임신 중 건강한 생활과 자녀 출산을 위한 모성으로서의 자기 돌봄과 임신부에 대한 개인적·사회적 배려, 영·유아기 및 아동기 자녀 양육과 같은 타인 돌봄의 내용도 나타났다.

Figure 4. Examples of Activity Tasks Related to Practical Problem-Solving Ability 2




**문제해결
탐구활동**

현대 사회에서 필요한 부모 역량 키우기

1 다음 질문에 대해 함께 토의해 보자.

- 1) 도덕성이 확고해지고 규칙과 질서를 배우게 되는 아동기의 자녀가 식당에서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을 때 부모가 어떻게 개입하고 행동해야 할까?
- 2) 현대 가족생활에서 '친구 같은 부모'는 자녀 양육에 있어 정말 좋은 것일까? 엄격함과 자애로움이 균형을 이룬 '엄부자모(嚴父慈母)'의 전통적인 자녀 양육은 현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가족관계와 공동체 의식이 반영된 활동과제는 연인, 가족과의 건강한 상호작용 및 관계 유지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대안을 탐색해보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지역사회와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임신부 배려석 확대 논란, 자녀 과잉 양육으로 인한 공중도덕 위배 등 가족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안을 탐색해보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었다.

공감능력이 반영된 활동과제는 부모, 자녀, 연인 등 다양한 삶의 장면에서 타인이 느낄 감정을 인터뷰, 역할극과 같은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하거나 자료로 제시하여 직·간접적으로 체험해보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또한, 가족과 관련한 자신의 감정을 학급 친구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공유해볼 수 있는 내용들도 다루고 있었다.

갈등관리가 반영된 활동과제는 연인, 부부, 부모와 자녀, 세대 간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는 내용을 다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녀 수 감소에 따른 과잉 양육 문제, 세대 간 갈등과 같이 ‘인간 발달과 가족’ 영역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었다.

의사소통이 반영된 활동과제는 관계에서의 의사소통 문제를 다루거나 적극적 경청, 나 전달법 등 건강한 연인관계 및 가족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의사소통 기술을 다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라미드 토론, 짝 토의와 같은 교수·학습 방법이나 설명하기, 발표하기, 이야기하기 등 표현적 기능요소를 발문에 활용하여 학생 간의 의사소통에 기반한 문제 해결 경험을 다루는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2) 실천적문제해결능력

실천적문제해결능력의 하위요소별 교과서 활동과제의 주요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실천적 추론이 반영된 활동과제는 배우자 선택 조건, 결혼의 동기, 저출산 현상, 현대사회의 부모역할 변화, 세대 갈등과 같이 개인의 발달과 가족관계와 관련된 삶의 문제 이면에 존재하는 배경과 고정관념의 분석을 다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활동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천적 문제에 내포된 사회적 배경과 고정관념의

이해에 기반한 사고과정과 이를 통한 문제 해결의 경험도 포함하고 있었다.

의사결정이 반영된 활동과제는 배우자 선택, 부모됨의 선택 등 개인의 발달과업이나 가족과 사회를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탐색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안을 선택할 시에 개인, 가족, 사회에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한 의사결정도 다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판단이 반영된 활동과제는 사랑의 의미, 행복한 결혼의 가치, 바람직한 배우자 선택 조건, 책임 있는 부모됨의 역량, 바람직한 부모 역할과 같이 가족생활과 관련한 가치판단의 상황을 다루며, 이에 대해 학생의 주체적인 가치판단 과정의 결과를 발표, 그림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비판적 사고가 반영된 활동과제는 학생들이 읽기자료를 활용하거나 연속된 발문에 따라 순서대로 활동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바람직한 배우자 선택 문제, 자녀 양육에서의 다양한 갈등과 같이 개인의 발달 및 관계와 관련한 문제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근거한 판단을 해 보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학급 친구들과 간 토의나 짝 토론 상황에서 타당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심도 있는 사고과정을 다루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었다.

실행력이 반영된 활동과제는 ‘인간 발달과 가족’ 영역에서 학습한 내용을 실습, 체험, 역할극, UCC 제작 등의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실제 삶에 직·간접적으로 적용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한, 활동과제를 통해 실생활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한 결과로써 최종 선택된 대안을 구체적인 행동으로서 실천하는 경험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서 ‘인간 발달과 가족’ 영역의 활동과제에 반영된 교과역량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기술·가정 12종 교과서 내 활동과제를 대상으로 하여 ‘인간 발달과 가족’ 영역을 통해

함양할 수 있는 관계형성능력과 실천적문제해결능력의 각 하위요소별 의미를 중심으로 분석 근거를 설정한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내용체계에 따라 교과서 활동과제별로 반영된 하위요소의 빈도를 산출하고, 교과역량별 다양한 하위요소가 반영된 활동과제 사례와 교과역량의 하위요소별 교육내용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라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 발달과 가족' 영역에 해당하는 교과서 활동과제에 대해 관계형성능력의 하위요소 중 갈등관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 갈등관리는 핵심개념 '발달'과 '관계'에서는 물론 각 내용요소별 분석에서도 상대적으로 교과서 활동과제에 적게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교 기술·가정 핵심개념 '관계' 관련 교과서 활동과제에 대해 관계형성능력의 하위요소 중 가족관계와 공동체 의식, 의사소통, 갈등관리의 반영 비율이 가장 높았던 선행연구(Kim & Yu, 2019)의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학급급 간 차이가 나타난 부분이었다. 관계형성능력의 하위요소 반영 양상에서 차이가 난 이유는 핵심개념 '관계'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요소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중학교에서는 '변화하는 가족과 건강 가정', '가족관계', '가족 간 의사소통 및 갈등관리'를 내용요소로써 다루고 있는 반면, 고등학교에서는 '자녀 돌보기'와 같이 돌봄을 직접적으로 교육과정에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 활동과제에서도 배려와 돌봄의 반영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학생들이 현재는 물론 성인이 되어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갈등을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 즉 회복탄력성이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발달 특성상 이성 교제의 비율이 높아지는 청소년들이 당면할 실천적 문제이며 이를 관리하는 능력은 데이트폭력의 예방 및 건강한 가족 형성의 기반 마련을 위하여 보편적인 학교교육을 통해 길러질 필요가 있다(Han, 2018). 청소년들이 마주할 미래의 가정생활은 복잡하고 급속한 변화를 거듭하는 사회적 흐름과 맞물려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한 가족 내 불안감, 스트레스가 현재보다 더욱 높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 다양한 유형과 강도의 가족 갈등을 필연적으로 포함할 것으로 예측된다(Choi, Kim, Lee, et al., 2018). 이에 OECD Education 2030 프로젝트에서 미래교육의 궁극적

지향점으로서 개인의 지속가능한 웰빙(Well-being)을 위해 '긴장과 딜레마에 대응하는 역량'을 강조한 만큼(OECD, 2018), 앞으로 학생들 스스로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따라서 '인간 발달과 가족' 영역에서 다루는 연인, 가족과의 관계 맺음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의 원인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교과서 활동과제 유형의 개발 및 재구성이 필요하다.

둘째, 핵심개념 '발달'의 내용요소에 해당하는 교과서 활동과제에 대해 실천적문제해결능력의 하위요소 중 실행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 실행력은 핵심개념 '발달' 전체는 물론 '사랑과 결혼', '부모됨의 준비', '임신 중 생활과 출산'의 각 내용요소에서도 가장 반영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핵심개념 '발달'에 대해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에서는 사랑과 결혼, 부모됨, 임신과 출산에 대해 미래의 시점이 아닌 현재 자신의 구체적인 가족생활과 연계하여 실천력을 기르기를 요구한다(MOE, 2015a). 따라서 학습자가 예비부모로서 예측되는 문제나 또는 현재 자신의 실제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에 따른 행동으로서 실천하는 역량인 실행력을 적극 반영한 교과서 활동과제의 개발 및 보완이 필요하다. 실행력의 보완을 위하여 태교 일기 쓰기, 준비된 임신과 건강한 출산을 위한 카드 뉴스 만들기 등 예비부모로서 또는 현재 자신의 가정생활을 기반으로 임신과 출산과 관련한 학습 내용을 삶에서 직·간접적으로 실천해볼 수 있는 활동과제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연애 성찰 체크리스트 만들기'와 같은 활동과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랑의 개념과 유형, 데이트폭력 문제 등의 교과 내용과 미디어에서 그려지는 다양한 연애상을 바탕으로 모듈별로 체크리스트 문항을 직접 제작·공유해봄으로써, 학생들 스스로 현재 자신의 이성 교제 상황과 연애에 대한 태도를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실천적 추론을 통해 가치를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실천적 경험을 하여 총체적으로 관계형성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과역량별 하위요소를 다양하게 반영한 교과서 활동과제 개발 노력이 필요하다. 교과역량별 하위요소를 모두 반영한 활동과제는 4개로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역량은 교과의 기준과 학생의 수행을 통해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 지식, 기능, 가치, 태도와 같은 인간 행동 영역의 전인적 발달

을 지향하는 총체성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이러한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Paik & Ohn, 2014). 즉, ‘인간 발달과 가족’ 영역의 각 내용요소들에 맞춰 교과역량을 구성하는 하위요소 전체가 연계되어 교과서 활동과제로 구현되고, 이를 활용한 가정과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관계형성능력, 실천적문제해결능력을 온전히 내면화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활동과제에서 부족한 하위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다양한 삶의 소재와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결합한 가정 교과서 활동과제를 개발하는 현장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관계형성능력과 실천적문제해결능력의 하위요소를 모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넷째, 교과역량별 활동과제의 주요 내용을 분석한 결과, 가정교과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와 현대사회에서 직면하고 있는 가족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내용을 다루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혼의 가치, 배우자 선택의 조건, 부모 역할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다양성을 존중하는 내용이나 연인, 부부, 부모와 자녀, 세대 간 관계에서 애정이나 애착에 기반한 돌봄을 다루거나 행복, 소중함, 기쁨, 보람, 감사와 같이 관계에 대한 긍정적 정서를 경험할 수 있는 내용, 저출산 현상, 현대사회의 부모 역할 변화, 세대 갈등과 관련된 문제의 맥락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고정관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는 내용, 사랑의 의미, 행복한 결혼의 가치, 바람직한 배우자 선택의 조건, 책임있는 부모됨의 역량, 바람직한 부모 역할과 같은 가족생활과 관련한 가치를 판단하는 내용 등이 그것이다. 최근 청소년 임신과 출산, 아동학대, 결혼 및 출산 기피 현상, 자녀 수 감소에 따른 과잉 양육 등 가족 문제들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 상황은 관계형성능력과 실천적문제해결능력의 부족으로 심화될 수 있기에 관계형성능력과 실천적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주고 가족생활과 관련된 실천적 문제를 다루고 있는 가정교과의 중요성이 더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가정교과가 학교 현장에 잘 가르쳐지기 위해 제도적으로 수업시수 배당이 더 필요하며, 가족과 관련된 실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데 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아동의 안전 강화 및 학대 예방, 돌봄의 가치 인식, 사회적 돌봄 역량 증진이라는 국가·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자 가정교과

의 융합 선택 과목으로 ‘아동발달과 부모’가 신설되었는데(MOE, 2022), 성인기를 준비하며, 건강한 타인 돌봄을 실천할 수 있도록 관계형성능력과 실천적문제해결능력을 기르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는 데 본 연구가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상의 결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고등학교 ‘인간 발달과 가족’ 영역의 세부 목표에 제시된 교과역량인 관계형성능력, 실천적문제해결능력만을 대상으로 하위요소를 선정하여 분석 준거로서 활용하였다. 따라서 나머지 영역인 ‘가정생활과 안전’, ‘자원 관리와 자립’의 세부 목표에서 제시하는 교과역량인 생활자립능력의 구체적인 하위요소를 밝혀 고등학교 가정 교과서에 반영된 교과역량을 분석하는 연구가 추후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인간 발달과 가족’ 영역에 해당하는 교과서의 활동과제에 반영된 관계형성능력, 실천적문제해결능력의 양상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기에 각 교과역량의 하위요소가 다양하게 포함된 활동과제를 개발하지는 못했다. 추후에는 관계형성능력과 실천적문제해결능력의 하위요소가 모두 반영된 활동과제를 개발하여 학교현장에 적용하여 교과역량을 함양하는 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검증해 볼 것을 제안한다.

셋째, 본 연구는 교과역량을 기준으로 하여 교과서의 활동과제를 분석하였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총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역량이 교육개혁의 방향으로 중요시 되고 있으므로 가정교과의 교과역량과 핵심역량이 어떤 관계가 있으며, 교과서를 통해서 핵심역량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분석하는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역량 함양에 가정교과가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Declaration of Conflicting Interests

The author declares no conflict of interest with respect to the authorship or publication of this article.

참고문헌

- Chae, J. H., Park, M. J., Kim, S. G., & Han, J. (2017). *가정과 교육론 (2판)[Home economics education (2nd ed.)]*. Paju: Gyomoon.
- Choi, S. Y., & Chae, J. H. (2020). A comparative study on Korean and American high school home economics textbooks based on habermas's three systems of action: Focusing on the learning objectives and activitie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32(1), 107-125.
- Choi, Y. R., Kim, E. J., Lee, S. Y., Lee, G. S., Lim, S. J., & Park, M. J. (2018). An analysis of high school technology & home economics textbooks activities to improve the resilience of youth.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30(4), 37-55. <https://doi.org/10.19031/jkheea.2018.12.30.4.37>
- Eo, J. H., & Oh, K. W. (2009). Students experience and preference on student activities in the clothing & textiles section of middle school 'technology & home economics' textbook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21(1), 51-69.
- Han, J. (2018). Development of dating violence prevention teaching-learning plan for high school home economics clas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30(4), 187-207. <http://doi.org/10.19031.jkheea.2018.12.30.4.187>
- Han, J., & Lee, H. J. (2018). Analysis on the motivational strategies of activity tasks in the technology & home economics textbook in the 2015 revised high school curriculum.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8(5), 639-664. <http://dx.doi.org/10.22251/jlcci.2018.18.5.639>
- Jin, E. N., Kwon, Y. J., Jeon, S. K., Kim, Y. I., Lee, C. H., Jeong, I. K., ... Lee, B. W. (2015a).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연구-실과 기술·가정·교육과정 [A study for the development a draft of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practical arts/technology & home economics curriculum]*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publication CRC 2015-18). Seoul: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 Jin, E. N., Yu, C. W., Jang, G. J., Lee, Y. M., Park, S. Y., Yang, Y. J., ... Park, J. J. (2015b). *핵심역량 증진을 위한 교과 교육과정 실행 방안 [Curriculum practice plan to enhancing core competencies]*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publication RRC 2015-8). Seoul: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 Jin, M. J., Koh, S. J., Kwon, S. B., Nam, Y. J., Bae, H. B., Sung, M. A., ... Huh, J. W. (2022). *가족과 돌봄 [Family and caregiving]*. Seoul: Hawoo. pp. 179-203.
- Kim, J. S. (2017). An analysis of subject characteristics and key competencies in practical arts/technology & home economics curriculum.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30(1), 1-18.
- Kim, K., & Choi, J. (2021). Analysis of Korean sustainable developmental goals (K-SDGs) in the context of 'human development and family' domain in middle school home economics textbooks. *Journal of Research in Curriculum & Instruction*, 25(3), 248-260. <http://dx.doi.org/10.24231/rici.2021.25.3.248>
- Kim, K., & Song, J. (2019). Analysis of contents of human development and family area of middle school technology & home economics textbooks in accordance with the 2015 revised curriculum: Focused on core concept 'development'. *The Journal of Curriculum and Evaluation*, 22(4), 31-56. <http://dx.doi.org/10.22799/jce.2019.22.4.002>
- Kim, K., Song, J., & Lee, G. E. (2019). Analysis of the units related to core concept 'relation' in middle school technology & home economics textbooks based on the 2015 revised curriculum.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24), 87-109. <http://dx.doi.org/10.22251/jlcci.2019.19.24.87>
- Kim, K. S., Yeon, J. A., Ham, H. I., Kim, S. M., Kim, H. J., Kim, S. Y., ... Lee, S. H. (2018). *고등학교 기술·가정 [High school technology & home economics]*. Seoul: Visang.
- Kim, S. B., & Chae, J. H. (2019). Analysis of core area of living culture in the high school home economics textbooks revised in 2015.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7), 871-903. <http://dx.doi.org/10.22251/jlcci.2019.19.7.871>
- Kim, S. M., & Yu, N. S. (2019). Analysis of subject competencies of the units related to core concept 'relation' in middle

- school technology & home economics textbooks based on 2015 revised curriculum.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31(2), 1-18. <http://dx.doi.org/10.19031/jkheea.2019.6.31.2.1>
- Kim, Y. S., Chae J. H., & Choi, S. E. (2017).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activation plan of the middle school home economics curriculum reorganization. *Korea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33(1), 155-179.
- Kwon, Y. (2018). A study for applying subject competencies to the national curriculum for home economics through analyzing the 21st century process skills model. *Korean Education Inquiry*, 36(1), 115-136. <https://doi.org/10.22327/kei.2018.36.1.115>
- Lee, H. J. (2018a). Analysis on learning activities found in high school home economics textbooks in the perspective of convergent educatio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8(6), 673-691. <http://dx.doi.org/10.22251/jlci.2018.18.6.673>
- Lee, H. J. (2018b). Developing teaching-learning plan for the core area of 'development' in the high school home economics subject applying discussion activity.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8(5), 709-732. <http://dx.doi.org/10.22251/jlci.2018.18.5.709>
- Lee, H., & Lee, J. (2018). Analysis on the inquiring tendencies of high school home economics textbooks based on the rome method - Focusing on the core construct of management -.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30(1), 99-114. <https://doi.org/10.19031/jkheea.2018.03.30.1.99>
- Lim, J. H., & Jun, M. K. (2016). Development and relations, as the core concepts of home economics in 2015 revised middle school curriculum in Korea. *Journal of Home Economics Education Research*, 34(4), 113-129. <http://dx.doi.org/10.19031/jkheea.2016.03.28.1.1>
- Lim, Y. J., & Park, M. J. (2019). A study on the definition of skills and sub-elements of practical art(technology & home economics) in the revised curriculum in 2015.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32(1), 141-162. <http://dx.doi.org/10.24062/kpae.2019.32.1.141>
- Ministry of Education (2015a). *실과(기술·가정)/정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 10) [Practical arts (technology & home economics)/information curriculum of Ministry of education #2015-74 Separate volume 10]. Sejong: Author.
- Ministry of Education (2015b).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 1) [Elementary and secondary curriculum overview of Ministry of education #2015-74 Separate volume 1]. Sejong: Author.
- Ministry of Education (2017).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고등학교* [2015 Revised curriculum general commentary: high school]. Sejong: Author.
- Ministry of Education (2022).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10) [Practical arts(technology & home economics) curriculum of Ministry of education #2022-33 Separate volume 10]. Sejong: Author.
- OECD (2018). *The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education 2030*. Paris: OECD Publishing.
- Paik, N. J., & Ohn, J. D. (2014). The meaning of standards and performance in a competency-based curriculum.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32(4), 17-46.
- Park, D. S., Kwon, J. K., Kim, J. M., Nam, H. W., Yang, G. S., Weon, H. H., ... Cho, J. M. (2020). *교육연구방법론 (3판)* [Educational research methodology (3rd ed.)]. Paju: Kyoyookbook.
- Park, M. J. (2009).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competence-based curriculum and its critical issues.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27(4), 71-94.
- Park, M. J., Kim, Y., Yu, M. S., Yu, I. Y., Kim, Y. N., Shim, S. Y., ... Han, S. B. (2018). *고등학교 기술·가정* [High school technology & home economics]. Seoul: Samyangmedia.
- Park, S. H., Moon, Y. J., Jang, G. J., Lim, Y. J., & Han, K. Y. (2018). *Methods of Integrating instruction with evaluation for enhancement of subject competencies: Focusing on Korean, history, mathematics, technology & home economics and music*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Publication RRI 2018-5). Chung Buk: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 Park, Y. B. (2020). *An analysis of subject competencies applied in the 2015 revised technology & home economics curriculum textbook 'home life and safety' area activity project*.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wangju, Korea.

- Son, H. M. (2017).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f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Qualitative Research*, 2, 56-63. <http://dx.doi.org/10.5762/KAIS.2020.21.4.210>
- Suh, C. Y. (2021). Analysis of the contents of 'hanbok and creative clothing' in technology & home economics textbooks for a high school textbook - Focused on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 *Journal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 24(1), 31-48. <http://dx.doi.org/10.16885/jkctc.2021.03.24.1.31>
- Un, S. K., & Park, H. J. (2020). A study on the effects of married women's intention of childbirth.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1(4), 210-217.
- Yang, J. S., & Yoo, T. M. (2018). The ideal portrait of human being pursuing in home economics education based on key competence and key concept. *The Journal of Practical Arts Education Research*, 24(1), 35-65.
- Yuk, K. M. (2020). The analysis of contents and inquiring tendencies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high school technology & home economics textbooks - Focused on the units of 'sustainable consumption -.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7), 1143-1165. <http://dx.doi.org/10.22251/jlcci.2020.20.7.11143>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에서 '사랑과 결혼', '부모됨의 준비', '임신 중 생활과 출산', '자녀 돌보기', '가족 문화와 세대 간 관계'의 내용요소에 해당하는 활동과제에 반영된 관계형성능력, 실천적문제해결능력의 교과역량을 분석하는 데 있다. 분석 대상은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서 12종의 활동과제 330개이다. 분석 준거로 관계형성능력의 하위요소는 다양성의 존중, 배려와 돌봄, 가족관계와 공동체 의식, 공감능력, 갈등관리, 의사소통으로, 실천적문제해결능력의 하위요소는 실천적 추론, 의사결정, 가치판단, 비판적 사고, 실행력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준거를 기반으로 두 차례의 분석과 가정교육 전문가 2인의 검토를 거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핵심개념 '발달', '관계' 관련 교과서 활동과제에 반영된 교과역량을 분석한 결과, 모두 관계형성능력의 하위요소 반영비율은 실천적문제해결능력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갈등관리, 의사결정의 반영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핵심개념 '발달'은 가족관계와 공동체 의식, 비판적 사고 반영 비율이, 핵심개념 '관계'는 배려와 돌봄, 비판적사고의 반영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각 교과역량별 하위요소들이 다양하게 반영된 교과서 활동과제 사례들은 관계형성능력의 경우, 다양한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상호 돌봄 및 건강한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활동과제 형태였다. 실천적문제해결능력의 경우, 학생들이 접하는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근저에 깔린 사회문화적 배경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대안을 탐색한 후 자신의 삶에서 주체적으로 실천해볼 수 있는 형태였다.

■논문접수일자: 2023년 8월 2일, 논문심사일자: 2023년 8월 26일, 게재확정일자: 2023년 9월 7일